

보도

경영대학 학점평균 'B0 이하' 맞춰

대학의 '성적평가 협조요청' 공식시행하는 단과대학으로는 '처음'



경영대학 성적부여 논란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서울】 경영대학이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에 한해 학점평균을 B0 이하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성적평가 협조요청'을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공식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교무처는 '성적평가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실험·실습 과목과 실기과정을 제외한 모든 강좌별 평균학점을 B0(평점 3.0)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평가하라'는 내용을 각 단과대학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총학생회(총학)가 크게 반발해 결국 철회한 바 있다. (대학주보 1582호(2014.12.08.))

경영대학 이호창 학장은 "평균학점을 B0 이하로 맞추는 안은 지난해부터 단과대학 내 교수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 동의한 바 있다"며 "이를 학생회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한 뒤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점이 교수와 학생간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점문제를 가지고 교수가 학생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교육의 질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이어 현재 경영대학은 강의의

〈경영대학 성적부여 현황〉

구분	2014-1학기	2014-2학기	2015-1학기
영어강의 평균	3.18	3.22	3.04
부분 영어강의 평균	3.35	3.24	2.95
제2외국어 강의 평균	-	2.69	2.56
일반 강의 평균	3.09	3.09	2.95
총 강의 평균	3.18	3.15	2.97

출처: 경영대학 제공

각 학점별로 비율을 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점별 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추가해 학점평균을 3.0 이하로 맞추는 것이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경영대학 학점 평균은 3.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이번에 학점평균을 3.0 이하로 맞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단과대학 자체로 학점평균 3.0 이하로 맞추는 안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대학이 채택한 이번 학점평균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갈렸다. 경영대학 A 학생은 "실제로 우리학교가 외부에 학점인플레이션을 심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평균을 B0로 맞춰서 줄일 필요가 있다"며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B학생은 "왜 학교 전체가 아닌 경영대학만 시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점평균을 맞추기 위해 A-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B+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겨 학점에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성적 평가가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불만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학기의 사항이 수강신청 이전에 공지됐다면 영어수업을 피해서 수강했을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어떠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도 받지 못했다' '기말고사 직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다' 등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학본부 "가이드라인 필요" 총학 "투명한 성적평가 기준 공개"

'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

박기윤 기자 kyoony7230@knu.ac.kr

'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가 지난 17일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대학본부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학본부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학점평균을 B0(3.0) 이하로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위원장은 "성적을 수치화된 가이드라인에 가두는 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투명한 성적평가 기준 공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성적 투명화 제도에 대한 의견은 좋지만 투명한 성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 안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강의 철학이 있는 교수들은 본인의 기준대로 성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의 입장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국제캠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국

제캠의 경우 평균학점을 B0(3.0)으로 고정한다면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기 서울캠 총학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서울캠에서만 실시한 반쪽짜리 설문조사라 공신력이 떨어진다"며 "다음 학기에 양 캠퍼스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대학이 단독으로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에 한해 학점평균을 B0 이하로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지난 학기 평점을 B0(3.0)으로 고정한 경영대학의 경우, 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독단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적평가 방식은 바뀌었으나 장학금 제도는 기존 그대로여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성적제도를 바꾸는 것은 단과대학의 자율이라 대학본부에서 간섭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학금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6차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결국 중재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회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iveNgive 기쁜기부 캠페인



경희 기부천사파트너즈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경희 라이언 서포터즈클럽

매그놀리아 스토리

후원의 집

give@knu.ac.kr

giveknu

giveknu

giveknu

02-961-0932 031-201-3190

The World is
a Global Village and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One Human Family.
May We Strive for
Peace and Humanity
with the Spirit of
Global Cooperation
Society.



give.knu.ac.kr